

일본 패밀리마트, 요양식을 200점포에 도입 -병원과 제휴해 가공식품 · 냉동식품 90품목-

- 일본 패밀리마트 편의점은 병원 내에서 영업하는 14점포에서 염분, 단백질 등을 배려한 메디컬 푸드(요양식)의 본격판매를 시작했다. 병원 인근에서 영업하는 점포를 포함하여 2017년도까지 200점으로 확대한다. 등록상품 약 180품목으로부터 병원의 요망에 따라 가공식품 약 80품목, 냉동식품 약 10품목을 판매 전개한다. 병원마다 환자요구에 대응한 다양한 상품과 24시간 · 연중무휴 · 1개부터 구매 가능한 편리성을 무기로 신 카테고리 육성한다.
- 의료식품은 당뇨병, 신장병, 고혈압 등으로 염분, 칼로리, 당분 등을 제한하고 있는 환자전용의 특별용도식품으로 재택 요양자나 고령자의 영양 강화 목적의 개호식품이 대상이 된다. 패밀리 마트는 2월부터 히로시마시에 있는 직영 점포에서 실험판매를 실시하고 12월까지 도쿄·오사카·아이치·와카야마·가고시마의 병원 내·병원 인근의 13점포에 전용매장을 설치하였다.
- 메디컬 푸드 등록상품은 약 180품목 있으며, 병원의 영양사와 상담하여 가공식품 약 80개 품목, 냉동식품 약 10개 품목을 판매한다. 제휴 병원의 영양사는 의료식품 팜플렛 (패밀리마트 점포안내 삽입)으로 환자에게 적합한 음식을 제안하고 환자는 패밀리마트 점포에서 대상상품을 구매한다. 의료식품은 일반식품보다 단가가 높기 때문에 도입 전에 비해서 매출은 2배로 증가하였다고 한다. 대량구매에 대응하기 위해 조기에 배달 서비스를 도입 할 예정이다.

■ 병원 내 점포는 현재 110개 점포가 있고 2017년도까지 전 점포 도입을 완료예정이다. 동 사는 일본영양사회, 도쿄도 영양사회에 찬조회원으로서 가맹하고 동 회의 이벤트 등에서 홍보하여 신규출점 기회를 늘릴 계획이다. 9월에는 일본농림수산성에서 개호식품 마크를 사용할 수 있는 승인을 받아 판촉물로 인지도 향상에 노력하고 있다

■ 시사점

최근 일본의 유통업체등에서는 고령화 사회에 대응한 개호식품에 대한 관심고조로 신상품들이 시판되고 있으며 개호식품 시장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우리도 개호식품 개발로 국내보급은 물론 향후 개호식품의 수출 품목 육성도 연구해보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